

천년 고도 랍양에서 일고 있는 한복 열풍



▲ 랍양시 락읍고성 야경

밤이 깊어가고 등불이 반짝일 때, 하남성 랍양시 로성구에 위치한 락읍고성(洛邑古城)에는 수만명의 관광객들이 모여든다. 세걸음에 한명의 '공주', 다섯걸음에 한명의 '귀비'를 만나게 되는 이곳에는 화려한 의상과 민족적 풍취가 가득하다.

"락읍고성을 찾아가 한복(汉服)과의 약속을 이루자." 온라인에서 꽤 유명한 이 구호는 최근 몇년간 '한복 체험 명소'로 떠오른 락읍고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 160여부 밖에 안되는 관광지

가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지 주변 1평방키로미터 반경에 1,000여개나 되는 한복체험점들이 운집한 락읍고성의 '폭발적 인기' 배후에는 사람들이 랍양 고도(古都) 문화 매력에 대한 추구하고 락양과 젊은 세대의 '쌍방향 노력'(双向奔赴)도 맞닿아있다.

락읍고성이 위치한 랍양시 로성구는 행정구역 면적이 고작 50여평방키로미터이고 상주인구가 약 25만명에 불과하지만 5개 A급 관광지를 보유해 2024년 관광객 유치량이 4,000

만명을 돌파했다. 로성구문화관광국 부국장 두정은 "2023년 한복 체험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구역내 한복점이 18개에서 1,100여개로 급증하고 관찰구역 392개 민박의 평균 입주률은 70%를 초과해 3만명 이상의 고용효과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하에 현지 한복 촬영시장을 규범화하기 위해 락양 문화관광공부국은 관광지 관리기관과 협력하여 촬영사에 대한 등록·교양·번호 부여·증명서 발급을 실시하고 명확

한 가격 표시와 번호패 휴대 영업을 의무화했다. '시범 촬영후 비용 지불' 규칙을 세우고 '불만족 시 선배상' 기제를 구축하여 '관광객 불만은 관리부에서 책임지는' 원칙을 실현하였다.

락읍고성의 촬영사 적연은 "규정 시행후 관광객에게 위험한 동작을 권하지 않으며 촬영중 추가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관광객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게 되었다."며 "악성 경쟁이 사라져 관광객도 만족해하고 우리도 기쁘다."고 말했다. 이처럼 관광산업의 규범화는 현지 산업 발전은 물론 락양 문화 전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락양 한복이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까닭은 문화관광부문의 효과적인 추진 덕분만이 아니다. 그 근본 원인을 고찰해보면 이는 현대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신감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다. 이 열풍은 결코 단순한 '복고(復古)'나 '치장'이 아니다. 이는 민족의 뿌리와 전통 미학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자신감 넘치는 표현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서 역사를 우려러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천년을 걸쳐 쌓여진 그 화려함과 우아함을 직접 몸에 걸치고 생활 속에 녹여내고자 갈망한다. 락읍고성의 검은 돌길 위에서, 응천문(应天门)의 찬란한 조영 아래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젊은이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눈빛, 표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동질감이다. /중국국제방송

농경문화를 빛내는 '소양절'



▲ 화북 야경

최근, 광서좡족자치구 계림시 룡송각족자치현 룡척진 평안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흥겨운 명절 분위기가 흘러넘쳤다. 이곳에서 해마다 열리는 '소양절'(梳秧节)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민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대오를 지어 다락전(梯田) 사이를 걷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샷갓을 쓰고 도롱이를 걸친 채 농기구를 들고 눈에 들어가는 농사일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해마다 망종 절기를 전후로 룡척진 주민들은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소양절' 행사를 길일(吉日)을 택해 펼친다. 올해 '소양절'에는 대규모 모내기 등 물론 다락전에서 바줄당기기, 고

기잡이, 화북 야경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행사 현장에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명절의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들었다. 다채로운 행사는 외국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을 흡인하여 이곳에서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민족 매력을 느끼게 했다.

"소양절" 행사는 정말 분위기도 뜨겁고 즐거웠어요. 이곳 농경문화는 배울 점이 많아서 다음에는 친구들과 같이 오고 싶어요." 향향에서 온 관광객 쑤저우가 신나서 말했다.

최근 룡송은 3가지 특색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관광 서비스를 전면 업그레이드하면서 인기 관광지도 떠오르고 있다. /중국국제방송

밀밭에 둘러싸인 천년 송릉



올해 밀 수확철에 하남성 공의시의 '천년 송릉(宋陵)과 황금 밀밭 물결이 어우러진' 풍경이 사진으로 찍혀 화제가 되었다.

'칠제팔릉'(七帝八陵)이라 불리는 공의시 송릉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히 보존된 고대 왕릉군으로 '로천 석각예술 박물관'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하남 공의시문화박물관 부주임 서형은 "송릉은 북송 황제 7명과 그들의 황후, 귀비 그리고 종친들의 무덤인데 현존한 석각은 1,027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중 영유릉(永裕陵), 영태릉(永泰陵) 부근의 밀밭이 바로 이번에 화제가 된 지역이다.

서형 부주임은 또 "공의시는 약 20년전에 벌써 룡모지역마다 전문적인 보호소를 세우고 122명의 문화재 보호 인력이 24시간 근무하며 정기적으로 석각을 관리하는 등 문화재 보호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특한 경관 유래에 대해 서형 부주임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

했다. 송릉이 있는 곳은 역사적으로 장기간 정부 소유지였다. 1915년 현지인이 직업학교를 설립했는데 해당 지역 땅을 세우면서 자금을 모아 학교를 설립했다. 토지 개간으로 해당 지역은 점차 경작지와 하나로 융합되었다.

2021년 6월부터 송릉 핵심지역의 약 2.1평방키로미터 경작지가 류룡되면서 공의시공공관매력사태 통일 경영을 맡게 해당 지역 밀밭의 경작과 수확을 책임지고 있다. 분산된 밭을 통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문화재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매년 밀 수확철이면 송릉 밀밭에서는 수확기로 기계화 작업을 진행한다. 관리원은 농기계 운전수에게 석상을 피해 가도록 지시한다. 석상 주변 작업은 사람이 직접 수확하여 문화재를 더 조심스럽게 보호한다.

최근 몇년간은 룡모지역 땅에 유재꽃, 해바라기를 심어 매년 봄과 여름이면 활짝 피어나는데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몰려오고 있다. /인민넷

강서성 신여시 하포수박물관(夏布绣博物馆)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여 하포수(新余夏布绣)가 진열되어 있는데 천년을 이어온 예술적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겨우 600여평방미터 밖에 안되는 하포수박물관은 마치 예술의 보물창고와도 같이 1만여점에 달하는 자수 진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중 당나라 시인 두보의 <려인행>(旅人行)을 본뜬 그림병풍은 섬세한 바늘 솜씨와 우아한 구도로 인물의 아름다운 자태를 살아숨쉬듯이 표현해냈다.

하포는 모시(苧麻)로 만든 천이다. 신여는 중국 하포의 고향으로 현지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하포에 수를 놓기 시작하면서 하포수(夏布绣)라는 수의 종류를 창조했다. "현재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은 방산일각에 불과합니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하포수의 신여시 대표 전승인 오완정은 "수많은 소장품이 지금 순회 전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걸 보세요. 지금 제 귀걸이가 바로 하포수예요." 심수민박회에서 돌아온 그는 감개무량해하며 말했다.

천년을 이어온 '하포수'



▲ 쌍면 병풍 <려인행>

"하포수예요 만든 물건을 쓰고 장수를 타고 옷을 입는 날이 오면 이 전통은 우리 삶 속에 살아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복송시기에 생겨 천년 세월을 지낸 하포수는 2014년 독특한 예술성과 문화적 의미를 인정받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명부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하포수는 강서성 자수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술혁신이 없으면 이 시대에 맞설 수 없다. 판판한 하포에 자수 놓기는 바위에 조각하듯 힘들고 정교한 작업이다.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하포수의 개척자 장소홍은 수백년 시

도 끝에 하포를 부드러운 비단처럼 개량해냈다.

그녀는 깊은 연구를 통해 '속비침바늘', '중중바늘' 등 여섯가지 독특한 바늘법을 개발해 수예 작품에 생동감과 입체감을 더했다. 또한 중국 산수화를 위주로 한 자수 주제를 확정하여 하포수를 민간의 마포수에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

이에 젊은 세대 전승자들도 주저하지 않고 세련된 패션 감각과 창의력으로 민간에서 탈바꿈한 이 전통 기술에 현대적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가방, 가구, 조명 등에 하포수를 절묘하게 접목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작품들을 선보였는데 마치 살아숨쉬는 듯한 작품들은 관람객들로 하여금 장인들의 미적 추구를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차 하포수의 독특한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오늘날 하포수는 국경을 넘어 로씨야, 독일, 브라질, 일본 등 10여개국에 진출, 마치 문화의 다리마냥 서로 다른 국가와 민족의 마음을 연결하고 신여시 나아가 강서성의 대외 문화교류의 빛나는 명함이 되어 중국 전통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신화넷

손끝의 예술 : 국풍 장신구



▲ 전통 화사 공예

무대 우의 배우가 곤곡(昆曲)을 부르며 앞으로 걸어나오자 머리의 점취(点翠) 두식(头饰)이 살짝 흔들린다.

20대 후반 보석 디자이너 왕성린

이 디자인한 이 작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보인 해강문 관모, 은도금 무란 비녀, 꽃나비 비녀, 나비 형상 귀걸이 등과 함께 국풍 장신구의 상징이 되었다. 신작이 올라올 때마다 '아

름답다', '생동감 있다'는 찬사를 받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구매 문의를 남긴다.

젊은이들의 문화적 자부심이 빛어낸 국풍 장신구는 이제 대중의 필수품이 되었다. 목걸이·브로치(胸针)·봉관(凤冠)·경용 세트부터 명나라 효단황후의 '구룡구봉관'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까지 화세(花细)·점취·삼입(镶嵌) 전통 공예에 현대 감각을 더해 청년들 속에서 '꼭 사겠다'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자연법칙에 순응하며 천년 지혜와 미학을 응축한 전통 공예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수이자 중화문명의 살아있는 유전자이다.

전통 공예는 조형·의경·문화적 아름다움으로 우수한 전통문화의 장엄함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의 마음도 사로잡는다.

화세, 삼입 등 전통 공예에 매료된

산동 청년 려지개가 1년간 '이룡구봉 일품고명관'(二龙九凤一品诰命冠)을 복원한 것처럼 야간학교의 교실에서 집중과 인내로 빛어지는 기술은 현시대에 청춘을 되찾으며 전통의 온기를 전한다.

"손끝의 기억이 글자보다 문명을 살린다."는 말처럼 젊은 장인들은 시대의 언어로 고대 기술을 해독한다. 왕성린은 거위·공작새 깃털에 3D 프린팅을 더해 '공예는 변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며 전통 공예와 현대 기술을 융합시켜 국풍 장신구를 생기발랄하게 빛내고 있다.

전통 공예 전시장 앞에 멈춰선 채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예쁜 비녀를 구입하는 이 순간들의 감탄과 설렘은 천년 지혜와 시대정신의 교차점에서 문명의 소리를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다. /인민넷

내몽골에서 펼쳐진 말 문화 향연



'2025 몽골말 슈퍼리그'가 내몽골 실린호트시(锡林浩特市) 조크우랄 목장에서 개막, 선수들은 당당한 말 기세와 능숙한 말 길들이기 기술로 사방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멋진 말 문화 향연을 선사했다. /신화넷